

# 개막 기약 없는 K리그 올해 27라운드 유력 검토

1부리그 예년보다 10경기 이상 줄듯  
5월 개막 의견 속 시점 여전히 미지수  
프로축구연맹 '무관중 개막' 고려 안해  
2부리그 10개 팀 3차례씩 대결 모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막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2020시즌 프로축구 K리그가 일단 1부리그 기준 예년보다 10경기 이상 줄어든 '27라운드' 체제를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7일 주간 정례 브리핑에서 "1부 기준으로 32라운드나 33라운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예비일 등 여러 상

황을 고려, 27라운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리그 1·2 구단 사장·단장들은 지난달 말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개막 시기와 시즌 방식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1부리그 기준으로 12개 팀이 풀리그 방식으로 팀당 33경기를 치르고, 상·하위 6개 팀으로 나뉘어 5경기씩(스플릿 라운드)을 더 치르는 현행 38라운드는 지킬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스플릿 라운드 없이 33라운드 ▲정규리그 22라운드에 스플릿 10라운드를 더한 32라운드 ▲정규리그 22라운드 이후 스플릿 5라운드를 치르는 27라운드 등 다양한 가능성이 논의 중이다.  
이 중 여러 정황을 놓고 봤을 때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방안이 27라운드라는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스플릿 없이 두 번씩 맞붙는) 22라운드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라며 "얼마나 경기를 치러야 '한 시즌'이 성립할지에 대한 결정도 필요한데, 일단 각 팀이 흡·원정 한 번씩은 돌아가며 경기를 치러야 하지 않느냐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2부리그는 정규리그 기준 현행 36라운드에서 10개 팀이 3차례씩 맞붙는 27라운드로 축소하는 게 '1순위' 옵션이다. 이보다 더 줄어 2차례씩 대결하면 총 18라운드가 돼 '한 시즌'이라고 하기엔 경기 수가 너무 적어 상정하지 않고 있다.  
개막 시점도 여전히 미지수다. 연맹 관계자는 "예비일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7라운드로 간다면 5월에는 개막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22라운드라면 약간 더 여유가 있을 것

로 보인다"면서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다만 '무관중 개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프로축구연맹의 설명이다. 관중뿐만 아니라 선수나 심판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의미가 없다는 전문가 견해를 참고한 판단이다.  
한편 K리그는 1983년 출범부터 단일리그만 열려온 전·후기리그, 플레이오프, 스플릿이 혼합되는 등 운영 방식이 12차례(2013년 이후는 1부리그 기준)나 바뀌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단일리그 이후 스플릿 라운드가 이어지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38라운드 체제는 2014년부터 계속됐다.  
2부리그도 2014년부터 단일리그 이후 플레이오프 체제가 정착했다. /연합뉴스

## 직원 일시 해고 비난에 리버풀 이틀만에 철회



구단 직원 일시해고 조처의 철회 결정을 알린 리버풀. (리버풀 구단 트위터)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버풀이 리그 중단에 따른 재정압박을 이유로 일부 구단 직원을 일시 해고하기로 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자 이틀 만에 철회하고 팬들에게도 사과했다.  
리버풀은 6일(이하 현지시간) 구단 홈페이지에 '리버풀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피터 무어 최고경영자(CEO)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틀 전 발표한 직원 일시 해고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리버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프리미어리가 중단된 데 따른 재정압박으로 경기 외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일부 직원에 대한 일시 해고 조처를 지난 4일 발표했다.  
리버풀은 "일시 해고된 직원들의 급여는 100% 지급될 것이다. 재정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구단 레전드 출신인 제이미 캐러거 등은 물론 팬들까지 나서서 거세게 비난했다.  
리버풀의 조처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이용해 일시 해고 상태인 직원의 급여 중 20%만 구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부자 구단'이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리버풀 무어 CEO는 "지난주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전례가 없던 시기에 모든 근로자가 정리 해고나 임금 삭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우리는 축구 경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부 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스포츠 도시' 강진 축구 전용경기장 더 산뜻해진다

3곳 15년만에 천연잔디 교체  
종합운동장 인조 잔디도 함께  
전국대회·전지훈련 유치 박차

전국 초등축구리그 등 굵직한 세계·전국대회를 잇따라 유치한 강진군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경기장 잔디를 전면 교체한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축구 전용경기장 천연잔디와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공사는 올해 8월에 마무리된다.  
축구전용 경기장은 사계절 잔디로 영랑, 다산, 하멜구장 3곳이 있다.  
지난 2005년에 천연잔디 구장을 조성한 이후 관리·보수에 왔으나 잔디수명이 다해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15년 만에 교체 공사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정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2억3000만원 등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도 추진한다. 지난 2008년 조성한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은 인조잔디가 낡아 축구경기 때 어려움이 있어 12년 만에 전면 교체한다. 이 사업에는 국비 3억원 등 총 8억원이 투입된다.  
강진군은 축구전용경기장, 종합운동장, 남포구장의 잔디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려 축구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이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의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 남자 프로농구 팀당 연봉총액 상한 25억원 동결

코로나19 여파...FA 협상 5월 1일부터  
프로농구 2020-2021시즌 팀당 연봉총액 상한(샐러리캡)이 지난 시즌과 같은 25억원으로 동결됐다.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다음 시즌 샐러리캡을 연봉 20억원에 인센티브 5억원을 합한 25억원으로 결정했다.  
프로농구 샐러리캡은 2017-2018시즌 23억원을 찍은 뒤 2018-2019시즌 24억원, 2019-2020시즌 25억원으로 매 시즌 1억원씩 올랐다.  
하지만 2019-2020시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정규리그를 마치고 못하고 중단돼 KBL은 물론 각 구단도 수입에 타격을 받았다.  
이 때문에 차기 시즌 샐러리캡이 동결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 계약하지 못한 FA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구단의 영입의향을 받아 팀을 선택할 수 있다. 종전에는 영입을 원하는 구단이 제시한 첫 시즌 보수(연봉+인센티브)의 10% 이내에서 선수가 팀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새 시즌에는 이 같은 제한을 폐지해 선수가 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FA 대상 선수는 이달 27일 공식된다.  
2019-2020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감독상-베스트5 상상은 이달 20일 KBL 센터에서 진행된다.  
KBL은 코로나19 여파로 별도의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수상자만을 초청해 시상하기로 했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된 D-리그는 정규경기 종료(2월 24일) 이후 1위 상무, 2위 창원 LG, 3위 전주 KCC, 4위 울산 현대모비스로 정했다. /연합뉴스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서울 SK-KGC인삼공사의 경기 장면. /연합뉴스

## 스키 월드컵 시즌 조기 종료 챔피언 트로피 택배로 전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시즌이 조기 종료된 가운데 우승 트로피도 별도의 시상식 없이 택배를 통해 시즌 챔피언에게 전달됐다.  
AP통신은 7일 "올해 월드컵 알파인 스키 여자부 우승자 페데리카 브리노네가 크리스탈 글로브를 택배를 통해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출신 선수 최초로 FIS 월드컵 알파인 여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한 브리노네는 3월 말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집 거실에 앉아 우승 트로피에 키스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AP통신은 "브리노네가 택배를 통해 받은 우승 트로피 크리스탈 글로브는 약 9kg 정도 되는 무게"라며 "종합 우승 트로피 외에 대회전과 복합 우승 트로피도 함께 받았다"고 전했다.  
브리노네는 택배 배달이 이뤄지지 않는 산 중턱에 집이 있는 관계로 트로피가 부모님 집으로 배달됐고 이를 본 남동생은 택배 상자의 사진을 찍어 "이거 누나가 주문한 거야?"라고 물으며 물건을 찾아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인버저블맨
3관	오픈 더 도어
4관	n번째 이별중
5관	오픈 더 도어, 신과 나: 100일간의 거래, 더 터닝, 스케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
9관	1917, 주디
7관	씨네커풀 정직한 후보, 사랑하고 있습니다
8관	씨네커풀 1917, 더 터닝, 스케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영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김영욱&이효주 듀오 콘서트**  
4.9(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베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